

장성 황룡강변 노란 해바라기 꽃단지 변신

주민 자발적 참여로 황미리랜드 3만3000㎡ 부지 조성 10월 1일 열리는 '노란꽃잔치' 맞춰 해바라기 심기 행사

풀숲만 우거진 채 방치된 강변 목초지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경관조성 노력을 통해 올 가을 노란 해바라기꽃 단지로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황룡강 둔지에서 오는 10월1일 노란꽃잔치 개막에 맞춰 해바라기 심기 거버넌스 행사를 갖고, 황미리랜드 내 3만3000㎡(1만평) 부지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23개 단체 34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썬리치 골드, 썬리치 풀선 등 2종류의 해바라기를 심었다.

올 가을 노란 해바라기 꽃이 만개하면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황미리랜드는 장성의 젓줄인 황룡강에서도 '황룡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너른 부지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곳이지만 그동안 풀숲이 우거진 채 방치된

강 하류 목초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성군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황룡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황룡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황미리랜드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황미리랜드 내 해바라기는 장성군이 지난 2016년 가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위해 처음으로 심었다.

당시 관광객들로부터 '명품 포토존(photo zone)'이라는 찬사를 얻었는데 힘입어 올해는 노란꽃잔치를 앞두고 대규모 해바라기 단지 조성에 나서게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황룡강의 가치가 매년 더 커지고 있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 나아가 옐로우시티 장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유두석(가운데) 장성군수는 지난 16일 황룡강 둔지 황미리랜드에서 지역단체 회원들과 함께 해바라기를 심는 행사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화순군, 생활문화교육 하반기에도 인기 도자기·퀼트공예·들꽃자수반 등 여성 문화 향유 기회

화순군이 숨 쉬는 도자기 초급반을 시작으로 도자기 중급반, 퀼트공예 고급반, 들꽃자수반 등 하반기 생활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문화교육은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농촌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다. 군은 지난 6월까지 도자기(기초반·전문가반)와 퀼트(초급·중급), 들꽃자수, 규방 자격증반 등 상반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3일 개강한 숨 쉬는 도자기 교육(사진)은 10월 23일까지 이양면 무량광도예에서 진행된다.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급반은 아름다운 집안 꾸미기를 주제로 생활도자기를 만들고, 중급반은 나만의 작품 만들기 주제로 좀 더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 화순 국화향연 때 판매할 계획이다.

퀼트 공예 고급반 교육은 초급, 중급을 마친 교육생이 수강하는 과정으로 지난 16일 개강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총 12회 진행되며 25명이 참여했다.

들꽃자수는 생활소품의 천에 꽃 모양을 여러 가지 색실로 수를 놓는 자수 기법이다. 25명이 수강하고 있는 들꽃자수반은 21일 시작돼 11월 13일까지 12회 열린다.

/화순=배재 기자 byj@

장성군, 경력 단절 여성 위한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교육 내달 2일부터 주 5회씩 진행

장성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교육은 SNS 마케팅, 디지털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이나 장소를 홍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군청 전산실에서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주 5회, 총 10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 온라인쇼핑몰 창업, 블로그 운영, 기업체 및 기관 등의 홍보, 홈페이지 관리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들의 취·창업에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민·관협동 자치농정 '시동' 농업관계자 100여명 참석 농업상생 발전 마련 간담회

담양군이 민·관 협치를 통한 '담양식 자치농정'에 시동을 걸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담양 농업 상생발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농업인과 함께 담양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는 농업관련 핵심 부서인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산림정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

서가 함께 마련해 영농기술과 유통·가공, 임업 소득화 등 농업 현안과 궁금한 사항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서 최형식 군수는 "WTO 개도국 지위상실 우려 등 국제정세 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의 전문가이자 지역농업의 핵심리더로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 관광·문화·인구유입·투자유치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 농협RPC통합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스마트팜육성, 유투브를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산업 활성화 등 농업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재정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은 다음달 5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2020년 신규시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흑염소 소비촉진·산업 활성화 온힘 새로운방제약 등과 업무협약...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활용

화순군이 흑염소 소비 촉진과 산업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화순군은 지난 19일 군청에서 (주)래오이경제, (주)새로운방제약, 화순군흑염소협회와 '흑염소 소비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흑염소 가격 하락,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흑염소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흑염소 소비 촉진, 산업화를 위한 공급 협력,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산업체, 생산단체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상호협력을 통해 위축되고 있는 흑염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군,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작업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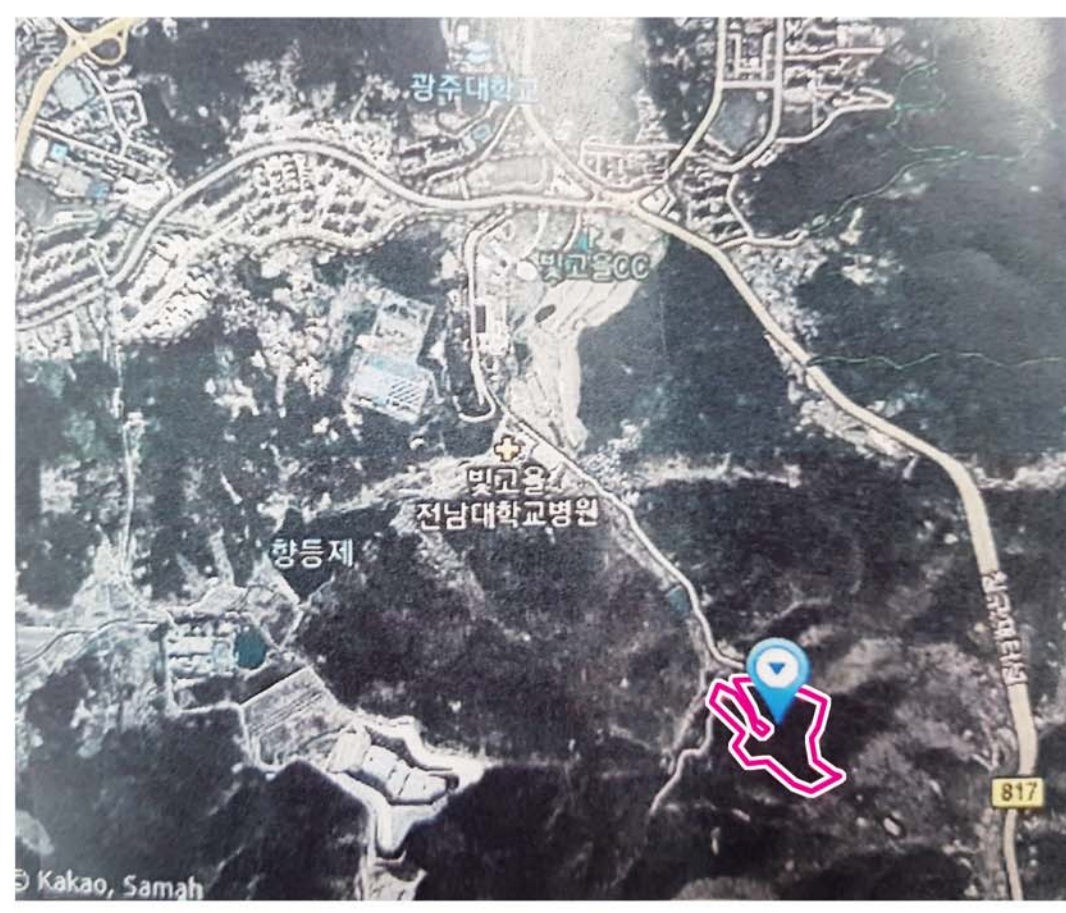
담양군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급속도로 퍼지는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비좁나무, 벗나무류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유충이 어릴 땐 실을 토해 잎을 싸고 집단으로 모여 앉아 먹은 뒤 잎 전체에 피해를 주는 등 나무

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이에 따라 군은 유충발생 2회기 도래에 따라 자체방제단 3개조를 투입해 가로수와 공원, 산림의 왕벗나무 등 활엽수류 약 3000그루에 대한 방제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